

올 연말 최고의 무대 '사라장 바이올린 리사이틀'

'2024 ACC 슈퍼클래식' 12월 26일 예술극장 극장1
5년만에 국내투어...브람스·프로코피에프 등 레퍼토리

줄리어스쿨 음악학교를 졸업한 바이올리니스트 사라 장(본명 장영주·사진)은 여덟 살 데뷔 당시 뉴욕 필하모닉(지휘 주빈 메타)과 협연하면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2년 뒤에는 그라모폰 선정 '올해의 젊은 음악가상'을 수상했으며 국내에서도 '세계를 빛낸 한국음악인 대통령 표창(1995)'을 받는 등 이름을 알렸다. 사라 장이 5년 만에 국내 투어를 일환으로 광주에서 공연을 펼칠 예정이어서 화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사장 김선옥·ACC재단)이 오는 12월 26일 오후 7시 30분 ACC 예술극장(극장1)에서 선보이는 '사라 장 바이올린 리사이틀'이 그것.

사라 장은 일전 2022년 국내에서 후배 음악가들과 비탈리 '사곤', 비발디 '사계' 등을 콜라보한 적 있으나, 광주를 비롯해 전국을 투어하는 방식은 이번이 5년 만이다. 사라 장은 데뷔 초기부터 베를린필과 3회 레코딩 작업을 진행한 '유일한 한국계'로 기록될 만큼 '스타 바이올리니스트'로 각인돼 있다. 당시 뉴욕타임즈가 특집 기사로 다뤘을 정도로 화제가 됐으며 이후 PBS 다큐멘터리 방영, 최연소 에이버리 피셔 캐리어 그랜트 상 등을 수상해 실력을 증명했다. 그는 2019년 한국 투어 당시에도 전 도시에서 매진 행렬을 기록한 바 있다. 13개 도시를 순회하는 이번 공연 또한 클래식 마니아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다. 공연의 막은 'F.A.E. 소나타 중 스케르초 다단조'로 불리는 브람스 초기작 '소나타스츠 C단조'로 열린다. 서양 고전음악에서 짧은 악곡을 칭하는 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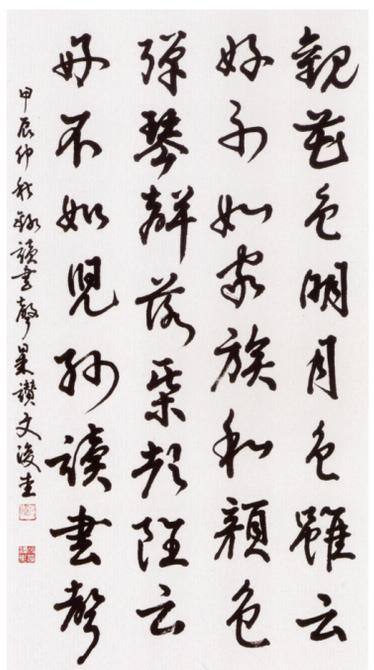
케르초(scherzo)는 해학과 익살스러운 분위기가 부각된다. 브람스가 1886-1888년 사이 작곡한 바이올린 소나타 중 마지막 작품 '바이올린 소나타 3번 라단조'도 울려 퍼진다. 4악장으로 구성됐으며 친구이자 동료인 한스 폰 빌로에게 헌정한 곡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러시아 작곡가인 프로코피에프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2번 라장조'도 레퍼

토리에 있다. 본래 플루트 소나타였으나 절친한 친구를 위해 바이올린·피아노로 편곡, 우아하고 기품 있는 고전적 성향을 발하는 작품이다. 한편 이번 리사이틀은 국내·외 저명한 아티스트를 초청하는 'ACC 슈퍼클래식' 올해 마지막 공연으로 기획됐다. 피아노 협연에는 지난 리사이틀에서 합을 맞췄던 미국 피아니스트 홀리오 엘리잘데가 출연한다. 시애틀 타임즈로부터 "강렬한 예술성과 파워를 지녔다"는 찬사를 받은 미국 피아니스트 홀리오는 유럽,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등 국제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다. 2014년부터 워싱턴주 시애틀 일원에서 개최하는 '올림픽 뮤직 페스티벌' 음악감독 등을 역임. ACC재단 문화예술사업팀 임지현 담당은 "클래식 입문자부터 마니아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슈퍼클래식' 마지막 무대 주인공은 5년 만에 한국을 찾는 '사라 장'이다"며 "연간 100여 회가 넘는 세계무대 일정을 소화하느라 리사이틀을 자주 열지 않는 예술가인 만큼, 이번 공연은 클래식필에겐 흔치 않은 기회가 될 것이다"고 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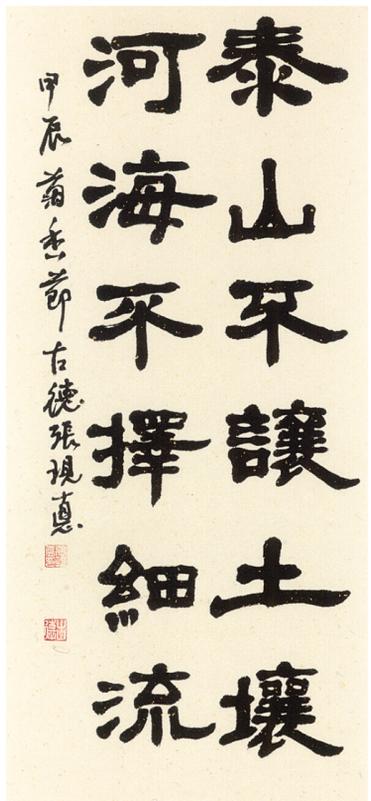
100명 작가 '수연회' 12번째 회원전

27일까지 시립미술관 금남로본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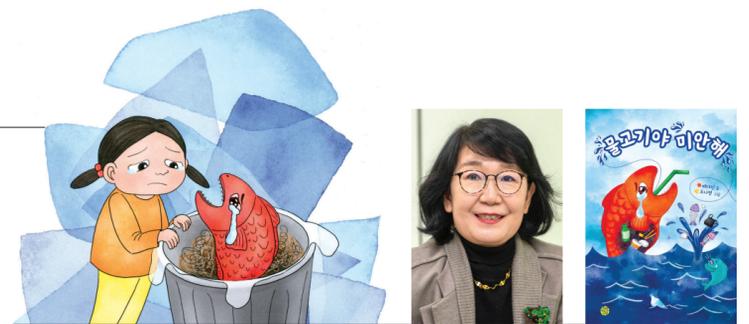
올해로 제12회째 회원전을 개최하는 수연회. 수연회(壽演會)는 명칭에 목숨 수(壽), 버루 연(禪)자가 들어 있는 명칭이다. 회원들 모두 장수하라는 뜻에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알려져 있다. 회원들은 이점숙 지립한문서예원장의 지도로 오랫동안 글씨를 써왔다. 수연회가 시립미술관 금남로본관에서 '수연회전'을 27일까지 열고 있다. 이번 전시에는 모두 100여 명의 작가가 참여했다. 문준규 회장을 비롯해 강석호, 강운필, 강윤석, 고재환, 구해우, 기갑서, 김국환, 김귀재, 김기일, 김남오, 김학봉, 유수영, 장현덕 등이다. 문준규 회장은 송강 정철의 '독서성(讀書聲)'을 출품했다. 화폭과 화합의 중요성을 강조한 문구다. "꽃경 달구경 비록 좋다고는 하지만/ 가족이 화합하여 환히 웃는 얼굴색만 같지 못하고. 가야금 타는 소리 바둑두는 소리 비록 좋다고 하지만/ 집안 자손들의 책임은 소리만 같지 못하다" 장현덕 회원은 사미천의 '사기' 이사열전(李斯列傳)의 한 구절을 작품으로 출품했다. "태산은 한 줌의 흙도 사양하지 않으며/ 강과 바다는 자랄한 물줄기를 가리지 않는다" 오늘을 사는 많은 이들이 한번쯤 숙고해볼 만한 내용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문준규 작 '讀書聲 松江鄭澈'



장현덕 작 '李斯列傳 史記'



명절 음식 생선에서 쓰레기가 나왔다

배다인 동화작가 '물고기야 미안해' 출간

고은이는 할머니, 엄마, 아빠와 함께 바닷가마을에 산다. 명절을 맞아 도시에서 사는 작은 아빠와 작은 엄마, 사촌 동생 은우가 오고 서울에서 회사 다니는 고모도 할머니 집으로 내려온다. 즐거운 명절날 아침, 가족들이 모여 음식 준비를 하는 도중 갑자기 문제가 발생한다. 제수로 준비한 생선에서 쓰레기가 나온 것이다. 고모는 가족회의를 열어 쓰레기를 함께 줍자고 제안한다. 평소 고모는 푸른 지구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천해왔다. 가족들은 바닷가에서 줍기를 하며 탄소 중립이 왜 중요한지 의견을 나눈다. 배다인(사진) 동화작가의 동화 '물고기야 미안해' (소년한길)는 모두가 함께 살아갈 지구를 위한 작은 실천들을 담고 있다. 배 작가는 이번 작품을 쓰게 된 배경에 대해 "자연 환경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연 환경이 파괴되면 인간이 살아가기 힘들기 때문"이라며 "바다가 오염된 것은 모두 인간들의 무분별한 행위에서 비롯됐다. 마구 쓰

레기를 버리면 머지않아 인간이 살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위험신호를 알리고 싶었다"고 전했다. 평소 바다의 이미지는 새하얀 파도를 비롯해 뜨거운 모래사장, 형형색색의 파라솔 등 다양하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평화롭고 아름답기 그지없다. 한편으로 바다는 많은 어류와 해산물, 해초류 등 수산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어류와 바다생물들은 인간들이 버린 쓰레기로 인해 폐사를 하거나 생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국 인간들이 버린 일회용 컵, 비닐봉지, 패트병 등의 최종 기작지는 인간이다. 한편 저자는 "얼마 전 페루,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등 남미 4개국에 다녀왔다. 아르헨티나의 병하가 많이 녹고 있는 현장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며 "현 세대의 파괴 행위가 지속된다면 후세대들은 아름다운 빙하를 못 볼 수도 있었다" 싶었다. 우리 모두가 각성하고 주위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부터 실행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박성천 기자 skypark@

로컬 시네마 성공 사례와 한강의 시적 산문같은 영화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특별영화상영전, 29~30일 광주독립영화관

한 도시가 국제적인 문화 브랜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영화'의 역할이 크다. 한강의 노벨상 수상을 기념해 로컬 시네마 성공 사례를 돌아보고 비슷한 주제를 다룬 작품들을 만나는 자리가 마련된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특별영화상영전 '시네스케이프'를 오는 29-30일 광주독립영화관에서 펼친다. 먼저 29일 오후 3시에는 '채식주의자의 영화'라는 주제로 한강 문학이 다른 '역사적 트라우마를 직시하고 인간 삶의 연약한 부분에 주목'한 작품을 만난다. 대학살 가해자들의 인간성을 반문하는 '엑트 오브 킬링'을 시작으로 한강 '작별하지 않는다'와 같이 4·3민중항쟁을 조명하듯 다뤄 '레드헌트'(오후 6시)가 스크린에 오른다. 이어지는 '외롭고 높고 쓸쓸한'은 5·18 민중항쟁을 조명했다는 점에서 한강 '소년이 온다'와 겹쳐 보인다. 이와 함께 30일은 부산국제영화제 3관왕, 서울독립영화제 관객상 등을 수상한 김초희 감독이 찾

아올 예정이어서 이목을 끈다. '극장의 빛이 사랑한 영화들'이라는 주제로 선보이는 이번 최초의 전작전은 오후 2시 오즈 야스지로 작 '안녕하세요', 오후 4시 김초희 작 '찬실이는 복도 많지'를 상영한다. 오후 6시부터는 김초희 감독 단편선을 볼 수 있다. '우리 순이', '산나물 처녀' 및 '우라까이 하루키'가 그것이며 임선우 배우와 함께 시네토크도 진행한다. 같은 날 오후 3시부터 광주영상복합문화관(3층)에서 '광주영화 컨퍼런스'도 열린다. 노철환 인하대 연극영화학과 교수를 비롯해 김성욱 서울아트시네마 프로그램 디렉터 등이 출연, '로컬 시네마(테크)의 새로운 기회: 영화 유산과 다양성의 확장' 등의 주제로 지역 영화인을 만난다. 광주독립영화관 한재섭 관장은 "동시대 독립영화계에서 가장 '핫'한 분들을 모시고 컨퍼런스 및 영화 상영회를 진행한다"며 "한강 노벨상 이후 기초 예술의 저변 확대를 위한 이번 행사는 민선 8기 공약 실현을 위해 기초 영화정책 등을 논의하는 자리



김초희 작 '찬실이는 복도 많지'

이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했다. 전편 무료 상영.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광주시향 'GSO 체임버 시리즈' 마지막 공연

12월 5일 광주예술의전당

광주시립교향악단이 선보이는 실내악 공연 'GSO 체임버 시리즈'가 어느덧 마지막 무대를 앞두고 있다. 브람스와 드보르작으로 채워지는 이번 공연은 실내악 오중주의 역사를 새로 연 브람스의 '클라리넷 오중주', 드보르작의 '피아노 오중주'를 만나는 자리다. 광주시립교향악단(이하 광주시향)이 '체임버 시리즈 VII'을 오는 12월 5일 오후 7시 30분 광주 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펼친다. 광주시향 강다영·김소연(바이올린), 조수영(비올라), 곡지현(클라리넷)을 비롯해 김동준(피아노)이 출연할 예정이다. <사진> 프로그램 막은 브람스의 '클라리넷 오중주'로 연다. 클라리넷의 우아한 색채에 애상적인 서정이 깃들여 있는 곡이며, 현악 사중주단과 클라리넷의 긴장과 이완이 돋보인다. 창작 당시 예순을 바라보던 브람스의 완숙미, 비통하고 심오한 색채감이 악곡에 투영돼 있다. 대미를 장식하는 곡은 '드보르작 피아노 오중주 Op.81'. 피아노 오중주의 역사를 열었다고 언급되는 슈만과 브람스의 아성을 잇는 명곡으로



주제별로 상이한 소재 선택, 악장별로 높은 완성도를 자랑한다. 비교적 많은 양의 실내악을 작곡한 드보르작의 작품 중에서도 음악적 구성이 풍부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광주시향 관계자는 "겨울 초입의 감성을 자극하는 이번 공연은 섬세한 선율로 관객들과 눈과 귀를 사로잡을 것이다"며 "비통하고 심오한 브람스의 곡부터 민속적 요소, 완결성을 지닌 드보르작의 작품까지 걸작을 만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전석 1만원, 티켓링크 등 예매(초등학생 이상 관람가).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